大巡眞理에 나타난 誠에 관한 硏究

金 正 泰*

目 次

Ⅰ. 머리말
Ⅱ. 성(誠)에 관한 이해(理解)
1. 천리(天理)로서의 성(誠)
2. 실리(實理)로서의 성(誠)
3. 성(誠)을 통해 본 심성론(心性論)
4. 퇴계(退溪)·율곡(栗谷)·다산(茶山)의 성(誠)
1) 퇴계(退溪)의 성(誠)
2) 율곡(栗谷)의 성(誠)
3) 다산(茶山)의 성(誠)
Ⅲ.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誠)의 의미
1. 요체(要諦)의 의미
2. 천도(天道)·천리(天理)로서의 성(誠)
3. 만물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성(誠)
4. 신·인감응(神人感應)의 매개로 나타나는 성(誠)
5. 운수(運數)와 관계하는 성심(誠心)
6. 정·기·신(精氣神) 합일로 나타나는 진성(眞誠)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신조(信條)는 수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나누어진다. 사강령과 삼요체는 그 성격이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사강령이 수도(修道)의 중요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삼요체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삼요체의 내용중 성(誠)에 관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수도의 목적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살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연구의 방법은 성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여 본 다음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순진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誠)의 특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성(誠)에 관한 이해

퇴계 이율곡의 견해에 따르면 성(誠)은 가치론적(價値論的) 사상의 핵심적(核心的) 문제이다. 특히 율곡에 있어서 성(誠)은 인간성(人間性)의 본질(本質)이자, 인간의 근본적 가치이며, 인간의 행동과 생활일체를 지배하는 지도원리(指導原理)이면서, 규제(規制)의 법칙(法則)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율곡전서(栗谷全書) 권 21, 성학집요(聖學輯要), 성실장(誠實章), 제 5의 내용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天有實理 故氣化流行而不息 人有實心 故工夫緝熙而無間 人無實心 則悖乎天理矣……一心不實 萬事皆假 何往而行 一心苟實 萬事皆眞 何爲而不成」"하늘(天)에는 실리(誠)가 있으므로 기화(氣化)가 유행(流行)하여 쉬지 아니하며, 사람에게는 실심(實心:誠)이 있으므로 공부(工夫)가 집희(緝熙)하여 간단(間斷)이 없으니, 사람에게 실심(實心)이 없으면 천리에 거슬린다 …… 한 마음이 불성실(不誠實)하면 만사(萬事)가 모두 거짓이니, 어디에 간들 행할 수 있으며, 한 마음이 진실로 성실하면 만사가 모두 성실할 것이니, 무엇을 한들 이루어 내지 못할까? "

라는 위의 내용은 성(誠)이 곧 천리(天理)이면서, 인간의 실존(實存)과 행동의 근본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1. 천리(天理)로서의 성(誠)

성(誠)은 천리(天理)와 부합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면서 인간의 가치와 행동양식의 근본원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간이 불성(不誠)하거나 그것을 상실(喪失)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은 타락(墮落)하게 되고, 마침내 인간의 가치는 상실(喪失)과 퇴색(退色)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성(誠)이 비단 인간만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근원이면서 존재이유(Ratio essenti)이며, 존재성의 본질이라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은『중용(中庸)』25章에 잘 나타나고 있다.

> 「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 君子 誠之爲貴」"성(誠)은 사물의 끝과 시작이니. 성이 없으면 사물도 없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성을 귀하게 여긴다."

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성(誠)을 단순히 인성론적, 가치론적 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우주론적, 존재론적 원리에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율곡이 성(誠)을 태극(太極), 리(理) 도(道), 성(性)으로 해석한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율곡전서(栗谷全書) 권 20, 聖學輯要, 2 窮理章 第 4 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太極在天曰道 在人曰性」"태극이 천에 있으면 도라 하고, 사람에게 있으면 성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율곡전서(栗谷全書) 권 14,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의 내용에서는 성과 천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天理之賦於人者謂之誠」 "천리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성(性)이라 한다."
> 「大抵性則理也」"대저 성(性)은 곧 리(理)이다."[1]
> 「於陰陽變易之中 有太極之理」"음양이 변화하고 바뀌는 가운데 태극의 리가 있다."[2]
> 「至善 太極之異名」"지극한 선(善)은 태극의 다른 이름이다."[3]
> 「至善之體 則未發之中 而天命之性」"지선의 체는 곧 미발의 중이고, 천명의 성이다."[4]
> 「誠者天之實理 心之本體」"성은 천의 실리이고, 심의 본체이다."[5]

이처럼 태극(太極), 리(理) 도(道), 성(性)은 성(誠)을 가치론적으로 명명(命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統體一太極」으로서의 리(理)는 하나

1) 栗谷全書, 卷 12, 答安應休 天瑞
2) 栗谷全書, 권 31, 語錄上
3) 栗谷全書, 권 9, 答成浩原, 丁卯
4) 栗谷全書, 같은 곳
5) 栗谷全書, 권 21, 聖學輯要, 誠實章 第 5

의 리(理)로서 인(人)과 물(物), 본체(本體)와 유행(流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편재적(遍在的) 성격과 항상성(恒常性)을 가진 것이므로 비록「各一其性」으로서의 분수지리(分殊之理)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자연, 인간과 만물은 동일한 리(理)에 의해 존재하고 생성·운행되는 것이다.[6]

이처럼 성(誠)은 리(理)와 같이 인간과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지배원리이면서, 리가 없이 물(物)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誠)이 없이는 만물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誠)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일관(一貫)하는 근원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 그것은 자연적인 존재법칙이자, 자율적인 당연법칙으로서 주체적(主體的)인 인간법칙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천도가 무단(無斷)하면서 불식(不息)하게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자연법칙에 일호(一毫)의 차착(差錯)없이 운행되는 배후에는 성(誠)이 자재(自在)함에 기인한 것이며, 인도(人道)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 오상(五常)의 당위적 법칙에 따라 운행(運行)되는 원리 역시 성(誠)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율곡전서(栗谷全書), 십유(拾遺), 권 6, 잡저(雜著) 3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元亨利貞 天之誠也 仁義禮智 性之誠也 二氣無此誠 則不可以竝運 四時無此誠 則不可以錯行 日月以之明 山嶽以之高 河海以之深 故曰不誠無物 誠之爲體 至微而至妙 誠之爲用 至顯而至廣 體於萬物而爲物之終始」
>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天)의 성(誠)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性)의 성(誠)이다. 이기(二氣)가 이 성(誠)이 없으면 함께 운행(運行)될 수 가 없고, 사시(四時)가 이 성(誠)이 없으면 착행(錯行)할 수가 없으며, 일월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밝고, 산악(山嶽)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높고, 하해(河海)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깊다. 그러므로 성(誠)이 아니면 물(物)도 없다. 성(誠)의 체(體)는 지미이지묘(至微而至妙)하고 성(誠)의 용(用)은 지현이지광(至顯而之廣)하니, 만물에 체득되어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된다."

이러한 성(誠)의 필연성(必然性)과 사실성(事實性), 합리성(合理性)과 타당성(妥當性)에 착안하여 그것을「진실무망(眞實无妄)」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

6)「天地人物 雖各有其理 而天地之理 則萬物之理 萬物之理則吾人之理也 此所謂統體一太極之理也」(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壬申)

(誠)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천리(天理)인 동시에 인간에 내재(內在)된 본성(本性)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성(本性)으로서 성(誠)이 지닌 선험성(先驗性)과 절대성(絶對性)에 근거하여 그것은 인간의 현실적(現實的)·경험적(經驗的) 판단과 요구에 따라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천명(天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성(誠)은 우주의 궁극적 실체(實體)이므로 감각적(感覺的)인 것으로는 보족(補足)할 수 없는 인간의 초월적 본성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선험적인 도덕률(道德律)이며, 행동준칙(行動準則)의 최고원리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최고선(最高善:höchstes Gut)에 해당하는 것으로 율곡은 그것을 지선(至善)이라 하여, 최고의 덕으로 간주(看做)하게 된다.[7]

한편 「천리(天理)」이며 「천명(天命)」·「지선(至善)」인 성(誠)의 실체는 인(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 대해 율곡은 율곡전서 권 31, 語錄上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全體之仁 則是性 非有異也」"전체의 인(仁)은 바로 성(性)이니, 인(仁)과 성(性)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성(性)은 성(誠)이면서 인(仁)인 것이며, 兩者는 誠의 일체(一體)이면서 양면적(兩面的)인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증자(曾子)가 인(仁)을 「충서(忠恕)」로 보았고, 주자(朱子)가 「충서(忠恕)」를 「진기(盡己」와 「추기(推己)」로 해석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양자의 의미에 관한 관련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궁극적 실체이자 인간의 초월적 본성으로 나타나는 성은 천리 그 자체로써 아무런 인위적(人爲的) 작위(作爲)가 수반되지 않는 자인적(自因的), 자조적(自造的)인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심의(心意)가 일어나지 않는(未發) 적연(寂然)한 심체(心體)이므로 율곡은 그것을 「자연이연자(自然而然者)」라고 하였으며, 또 「무위자(無爲者)」[8] 라고 말했다.

또한 그것은 잠연허명(湛然虛明)하여 공허(空虛)하기는 거울과 같고 평평하기가 저울대와 같은 것으로 지공무사(至公無私)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

7) 都珖淳,「誠의 敎育理論的 論理」,『國民倫理硏究』, 第 10號, 304면 참조
8)「誠無爲者未發也」(栗谷全書, 권 12, 答安應休)

그것을「중(中)」이라 하게 된다. 따라서 성(誠)이 있는 곳에 중(中)이 있고, 중이 있는 곳에 성이 있는 것이 되므로 성(誠)과 중(中)은 또한 일체(一體)이면서 양면적(兩面的)인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심(心)이 내감외응(內感外應)하면 성발위정(性發爲情)이 되거니와 그 정(情)이 청명(淸明)한 기(氣)를 승(乘)하여 천리에 따라 직출(直出:循天理而直出)하게 되면「화(和)」가 되니, 화(和)는 이발시(已發時)의 중(中)으로서, 화(和)에서 성(誠)은 여실(如實)히 발리(發理)되는 것이다. 이렇듯 중화(中和) 속에서 발견되는 성(誠)은 자약(自若)하게 되는 것이므로「존성(存誠)」과「지중화(至中和)」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율곡은 성(誠)을「至中和」의 사상으로 발전 전개시켜 그는 지중화(至中和)를 통해 자아의 인격적 조화를 이룩하는 동시에(修己), 일가(一家)의 화평과 일국의 화평을 구현하는 동시에 천하의 화평을 실현하고자(治人)한 것이다. 따라서 성(誠)으로 충만한 세계는 곧 인(仁)의 세계이면서, 천리에 의해 지배되는 지선(至善)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가 곧「천지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경지이다. 이러한 사실을 율곡전서 권 19, 성학집요 통설 제 1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至中和而位育者 明德新民至於至善 而明明德於天下之謂也……至中和之功止於一家則一家之天地位萬物育 而明德明於一家 至於一國 則 一國之天地位萬物育 而明德明於一國 及於天下則天下之天地位萬物育 而明德明於天下矣」"지중화하여 화육한다는 것은 명덕·신민·지어선과 명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을 말한다. ……중화의 공이 일가에 그치면 일가의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생육할 것이고, 명덕이 일가에 밝게 될 것이며, 한 나라에 그치면 일국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화육할 것이고, 명덕도 일국에 밝게 될 것이며, 천하에 그치면 곧 천하의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생육하며 명덕이 밝게 될 것이다."

성(誠)은 천리이면서 천리는 합리적(合理的)이고 이성적(理性的)인 것이다. 이러한 천리는 청명한 기(氣)에 승(乘)하여 발휘되면 그 명(明)을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氣)가 청명하면 사심(私心)과 사욕(私慾)의 발동이 없게 되며, 천리의 이성적(理性的)인 면을 그대로 밝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성(誠)은 구현되는 것이다.

성(誠)하면 명(明)은 자연 그 안에 있는 것이지만(在其中) 명(明)을 실현함으로써 성(誠)을 구현(具現)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善)에 명(明)하지 아니하면 자신에 있어 불성(不誠)하다.」(誠則明 明則誠) 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율곡이 성(誠)을 말하되 「中和」와 「明」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결국 성(誠)을 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誠)과 리(理)와 인(仁), 중화(中和)와 명(明)과의 관계는 상호 밀접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실리(實理)로서의 성(誠)

앞의 논의에서 밝혀본 것처럼 성(誠)은 태극(太極)과 리(理)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았다. 따라서 그것은 초월성을 지니면서도 항상 음양(陰陽)가운데 내재하며 그것과 동시(同時)하며, 동재(同在)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물에도 적용되어 만상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즉 언제나 무단무시(無端無始)한 음양동정(陰陽動靜)을 떠나서 있지 아니하며, 또한 심체(心體)로서의 성(性)은 적연허적(寂然虛寂)한 것이지만 그 속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이 삼재(森在)하고 그 자체가 적연부동(寂然不動)하면서도 감통하여 서로 통하기 때문에 곧 정(情=用)으로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무망(眞實无妄)한 이 성(誠)은 단순히 공무(空無)하며 무위(無爲)한 리(理)가 아닌 사물과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실유(實有)하며, 실위(實爲)한 실재하는 리(理)인 것이다.

즉 사실(事實)속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위하고 있게 하는 실(實)의 리(理)인 것이다. 따라서 「진실무망(眞實无妄)」이란 사실(事實)속에 있으므로 사실을 통해 실증되어 질 수 있는 실리(實理)이므로, 성을 「실리(實理)」 또는 줄여서 「실(實)」로 표현하는 동시에 율곡은 이를 일러 「誠者 天之實理」라 했던 것이다.[9]

이러한 사실은 그의 태극론이나 이기설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심성론을 통해서도 능히 유추해 볼 수 있다.[10]

---

9) 栗谷全書, 권 9, 答成浩原

10) 이와 관련한 내용은 栗谷全書, 권 9, 答朴和叔. 같은 책, 권 20, 聖學輯要, 窮理

율곡이 성(誠)을 특히 실리(實理)로 포착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형이상학적 사상의 특질인 「리기불상리(理氣不相離)」 「리통기국(理通氣局)」 등의 사상과 주기론(主氣論)의 사상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氣)없는 리(理)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리(理)는 언제나 기(氣)를 수반함으로써 리(理)는 무(無)와 정(靜=無爲)의 리(理)가 아닌 유(有)와 동(動)의 리(理) 다시 말하면, 공(空)이나 허(虛)의 리(理)가 아닌 「실(實)」의 리(理)로 포착되었던 것이다. 즉 유(有)와 동(動)은 사실(事實)의 현상(現象)이며, 실제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떠나서는 리(理)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천지만상의 조화(造化)·생성(生成)의 사실현상의 리(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실적, 실제적, 실천적 행동과 생활에 근거와 바탕을 둔 실제화 된 리(理)인 것이다.

> 「誠者實理也 無實理則無是物」 "성(誠)은 실리이다. 실리가 없으면 물(物)도 없다."[11]

> 「對天地之理實理而已 人物之生莫不依乎實理」 "천지의 리에 대해 말한다면 실리뿐이다. 사람과 사물이 생(生)함에 실리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다."[12]

> 「天以實理有化育之功 人以實心有感通之效 所謂實理實心者 不過曰誠而已」 "천(天)에 실리(實理)가 있으므로써 화육(化育)의 공(功)이 있다. 사람에게 실심(實心)이 있으므로써 감통(感通)의 효(效)가 있다. 소위 실리 실심은 이미 지나치지 않는 것을 성이라 한다."[13]

이처럼 성(誠)은 현실에 바탕을 둔 강한 실천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것은 언제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교육의 양대 방법인 「궁리(窮理)」 「거경(居敬)」에 「역행(力行)」을 더한 그의 교육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실천을 강조하는 성(誠)은 다음의 내용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

章 第 4. 같은 책, 권 9, 答朴和叔 乙亥. 같은 책, 권 10, 答成浩原, 壬申. 같은 책 권 10, 與成浩原. 같은 책, 권 21, 聖學輯要 正心章. 등이다.

11) 栗谷全書, 권 31, 語錄, 上

12) 위의 책, 습유(拾遺), 권 5 잡저(雜著) 2

13) 위의 책, 拾遺, 권 3, 誠策

펴보자.

「必有實心然後 乃下實功 故誠實爲躬行之本」"실심이 있는 연후에라야 비로소 실공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실(誠實)은 궁행(躬行)의 근본이다."14)

「所謂實功者 作事有誠 不無空言之謂也 子思子曰 不誠無物 孟子曰 至誠未有不動者也 苟有實功 豈無實效哉」 "소위(所謂) 실공(實功)이란 것은 일을 하는데 정성(精誠)껏 하여 공언(空言)을 하지 않는 것이니, 자사(子思)는 말하되 『불성(不誠)이면 무물(無物)이다.』라고 하였으며,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지성(至誠)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실공(實功)이 있으면, 어찌 실효(實效)가 없겠는가?"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행동의 연속적 과정은 곧 생활이므로 실사(實事)는 생활의 실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실리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실공(實功)의 실제적인 효과는 생활 속의 실용(實用)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실용(實用)은 곧 일용(日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학문의 사변적(思辨的) 이론이나 현학적(衒學的) 지식(知識)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誠)은 분명 사회 지향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誠之者 敎者之所以成己成物者也」"성이란 것은 교자(敎者)의 성기(成己)·성물(成物) 하는 소이(所以)이다."15)

「唯天下至誠爲化 至誠而能化人者 愚聞之矣 不誠而能化人者 愚未之聞也」"오직 천하의 지성(至誠)은 능히 감화(感化)케 하니 지성(至誠)이면서도 남을 감화케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16)

「一家之人不化 只是誠意未盡」"한 집안의 사람이 화(化)하지 못한 것은 다만 성의(誠意)가 미진(未盡)한 것 때문이다."17)

「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

14) 위의 책, 권 21, 聖學輯要, 誠實 第 5
15) 위의 책, 拾有, 권 6, 四子立言不同疑
16) 위의 책, 같은 곳, 화책(化策)
17) 위의 책, 권 14, 자경문(自警文)

倚」"오직 천하에 지극한 성(誠)이 능히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륜하며, 천하의 대본을 세우며, 천지의 화육을 알고 있으니, 어찌 딴 것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18]

이처럼 「진실무망(眞實无妄)의 리(理)」로 표현되는 성(誠)은 결과적으로 「실사(實事)」 「실공(實功)」 「실효(實效)」의 리(理)이며, 그것은 다시 실천(實踐), 실질(實質), 실용(實用), 독실(篤實), 변역(變易)이라는 실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리(理)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인 천리(天理=誠)가 사람에게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을 품수(稟受)한 기질(氣質)의 청탁수박(淸濁粹駁)으로 인해 그것을 현실 속에서 표출하는데는 선악성범(善惡聖凡)의 차이가 있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통지정지청지수(至通至正至淸至粹)한 기(氣)를 품수(稟受)하여 성(誠)의 완전한 것을 현실적으로 구유(具有)하고 있는 사람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의 성(誠)은 자연이연(自然而然)한 천성적(天成的)인 것이며, 천의 성 그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외의 존재는 모두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며 부분적인 것을 면치 못하게 된다.

「純乎天理而得誠之全者 聖人也 實其一端而得誠之偏者 賢者也」"천리에 순수(純粹)하여 성(誠)의 전(全)한 것을 얻은 자(者)는 성인(聖人)이며, 그 일단(一端)이 실(實)하여 성(誠)의 편(偏)한 것을 얻은 자(者)는 현자(賢者)이다.[19]

「聖人者 獨得至通至正至淸至粹之氣 而與天地合德」"성인이란 홀로 지극히 통하고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맑고 지극히 순수한 기를 얻어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합한다."[20]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중용(中庸)』 20장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성은 하늘의 도요 성은 인간의 도이다. 성은

18) 中庸 32章
19) 위의 책, 십유(拾遺), 권 6, 성책(誠策)
20) 위의 책, 권 10, 答成浩原

힘쓰지 아니 하여도 중(中)하며, 생각하지 아니 하여도 얻으니, 종용(從容)히 도(道)에 중(中)하니 성인이라 한다. 성(誠)은 선(善)을 택(擇)하여 고집(固執)하는 것이다."

「大哉 聖人之道 洋洋乎發育萬物 峻極于天」"크도다. 성인의 도여! 넓고 넓게 만물을 발육하여 높음이 하늘에 다하였다」[21]

성(誠)의 완전함을 이룬 성인(聖人)에 대해 율곡은「성차성자(性此誠者)」라고 말하고 있으며, 현자(賢者)이하의 중인(衆人)은 모두 면지면행(勉知勉行)하는 대상으로 즉 힘써 배우고 수양을 통해 실천해야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학문과 수양을 통해 성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그러한 부류를「반차성자(反此誠者)」라고 말한 것이다.

「聖人性此誠者也 君子反此誠者也」[22]

이와 같은 사실은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성(誠)이 신조중 수도의 요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반차성자」인 중인(衆人)은 모두가 인도(人道)를 수행하여 천도(天道)인 실리(實理) 또는 성(誠)으로 돌아감으로서 성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수행의 필연성은 대두되는 것이며, 인간은 현우귀천(賢愚貴賤)의 차별 없이「誠之」또는「實心」에 의해「反此誠」함으로써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天道則實理 而人道則實心也 實理之誠 則聖人氣稟淸明道理渾然 體此而生知安行 此乃自誠明者 而孟子所謂萬物皆備於我者是也 然則中庸之誠者豈非實理之誠乎 實心之誠 則大賢以下氣稟未純淸明 而不能渾全其天理 性情或率於人欲 而不能百行之皆實 故明善而實心 此乃自明誠者 而中庸所謂誠身是也 然則大學之誠其意 論語之主忠信 孟子而反身而誠 與夫中庸之誠之者 何莫非實心之誠乎」"천도는 곧 실리이고 인도는 곧 실심이다. 실리지성은 곧 성인이니, 기품(氣稟)이 청명하고 도리가 혼연하여 이를 체득해서 생지안행(生知安行) 한다. 이것이 곧『자성명자(自誠明者)』이고, 맹자가 이른바『만물이 모두 내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한 그것이다. 그렇다면, 중용의『誠者』가 어찌『실리지성(實理之誠)』이 아닐까? 실

21) 中庸 27章
22) 위의 책, 拾遺, 권 6, 誠策

> 심지성(實心之誠)은 곧 대현이하(大賢以下)이니, 기품이 청명함에 있어 순수하지 못하고, 천리를 혼전(渾全)하지 못하여, 성정(性情)이 혹(惑)인욕(人慾)에 이끌려가기도 하고, 백행의 모두가 다 진실할 수가 없으므로, 명선(明善)하여 실심(實心)하게 된다. 이것은 곧 「자명성자(自明誠者)」이고 중용에서 이른바 「성신(誠身)」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성기의(誠其意)」, 논어의 「主忠信」, 맹자의 「반신이성(反身而誠)」과 저 중용의 「성지자(誠之者)」가 어찌 실심지성(實心之誠)이 아닐까? "

이상과 같이 성인(聖人)은 천리인 지성(至誠)을 이루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행하는 존재이며, 진실무망한 천리의 본연지성에 합일한 인간을 의미한다. 또한 지중화(至中和)의 덕을 생지안행(生知安行)하는 존재로서 삼라만상을 화육하는 일에 참여하며, 그 덕이 천지와 합쳐진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천하의 대경대법(大經大法)을 경륜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誠)의 현실적 실현은 성인(聖人)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가시화 되며, 현실 속에서 원형적(原型的)인 모범(模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誠)이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신조 중에서 수도의 요체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자간의 공통점과 부합되는 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통이며, 그것의 현실적 실체를 도통군자라고 상정한다면 성인과 도통군자간의 공통적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시 뒷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 성(誠)을 통해본 심성론(心性論)

성(誠)을 중심 매개로 한 심성론의 발전은 인간학(人間學)과 윤리학(倫理學) 그리고 교육학(敎育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사회철학(社會哲學)과 정치철학(政治哲學)을 일관(一貫)하는 근본원리가 되었다. 즉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후대 성리학의 새로운 인간상의 정립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펼쳤던 인간 심성론에 근거(根據)는 중용(中庸)에 나타난 장구(章句)를 해석한 주자(朱子)의 학설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견

해와 논쟁으로 시작된다.

주자는 중용에 나타난 해석을 통해 인간 심성론의 기초를 설하였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 인·물(人物)의 생(生)은 리(理)로 인해 각기 그 것을 부여받는 바, 이로써 오상의 덕을 굳건히 하고 따르는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한다."[23]

이렇듯 주자는 성즉리(性卽理)에 바탕을 두고 오상(五常)의 덕이 성(性)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四端)은 천리(天理)가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본연지성(本然之性)의 덕(德)이 됨을 강조하였다.

4. 퇴계(退溪)·율곡(栗谷)·다산(茶山)의 성(誠)

율곡과 퇴계는 우주현상과 인간의 도덕실천 문제에 관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해명을 위한 이론인 이기론(理氣論)의 대표적 학자이다. 그리고 이기론에 근거하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이(理)와 기(氣)로써 구성되었으며, 이와 기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유형적 존재는 모두 무형의 원리 또는 원인에 의하여 생성, 변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와 기에 의한 존재론적 규정과 생성론적 설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 위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이와 기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 위에 있고, 또 동시에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기론의 전개는 이(理)와 기(氣)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우주의 생성원리로서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理)인가 아니면 기(氣)인가 하는 문제가 논쟁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황(李滉)은 주리론(主理論)을 펴 이(理)가 우주생성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이(李珥)는 기(氣)가 보다 근원적이라는 주기론(主氣論)을 편다. 이같은 이기론은 나중에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인물성동이론 등 다양한 학문적 논쟁거리와 연결되면서 한국 유학을 더욱 심오한 경지로 끌어

23) 中庸 1章. 朱子集註

올렸다.

주리론(主理論)은 그후 영남학파의 절대적인 지도원리로서 이현일, 이진상 등에게로 계승되어 조선유학을 지도한다. 한편 주기론(主氣論)은 송시열, 한원진 등 기호학파에 계승되어 조선 유학의 또 다른 한 주축을 이루었다.

이기론은 근본적으로 중국 성리학에서 유래되었으나 그 논쟁의 영역은 중국을 넘어서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였으니 실로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기론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퇴계와 율곡이 주장한 성(誠)에 대한 인식은 성학(聖學)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심법에 성(誠)과 경(敬)을 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그 주된 원인은 퇴계가 이기호발론(理氣互發論)을 근거로 인욕(人慾)의 극복에 주안점을 둔데 비해서 율곡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근거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개조에 주안점을 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퇴계의 견해를 이기론, 사단칠정론, 선악론, 성경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퇴계(退溪)의 성(誠)

(1) 퇴계(退溪)의 이기론(理氣論)

퇴계는 주자의 이기설[24]과 부잡불리(不雜不離)의 관계에서 이기론을 정립하였다. 퇴계는 이기(理氣)의 불상리(不相雜)을 알기 위해서 양자를 나누어 보아야 하며, 불상리를 알기 위해서 양자를 합쳐보아야 한다고 하였다.[25] 그러나 퇴계 이기론의 특색은 분간(分看)을 중시하여 이기호발론(理氣互發論)을 펼친 데 있으며, 지묘지용으로서의 리(理)는 소당연(所當然)으로서의 능발능생(能發能生)하는 능동적 존재라고 한데 있다.[26]

---

24) 朱子大全 卷46. 「理與氣決是二物 但在物上着 則二物渾淪 不可分開各在一處」
25) 退溪全書 권, 5 참조
26) 退溪全書 권 1. 2, 의 내용에 근거하면
「朱子曰理有動靜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本然之體 能發能生 至妙之用也」

(2) 퇴계(退溪)의 사단 칠정론(四端七情論)

아래의 내용은 그의 사단칠정에 관한 견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자.

「兄是不雜乎氣質而言則爲本然之性 就氣質而言則爲氣質性」[27]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28]

이(理)는 성(性)이 기(氣)와 섞이지 않은 이(理)로서 존재하면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기(氣)와 섞이면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고 하며, 인간의 성정(性情)을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에 의한 것이라는 이원론적(二元論的)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단(四端)은 이발(理發)의 본연지성(純善)이며, 칠정(七情)은 기발(氣發)의 기질지성인데, 기질지성은 유선악(有善惡)이지만 주로 인욕(人慾)의 악(惡)에 치우치기 쉽다는 점을 중시한다.

(3) 퇴계(退溪)의 선악론(善惡論)

아래의 내용은 그의 심성론에서 선악에 대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다.

「氣而無理之乘 則陷利欲爲禽獸」[29]

「若氣發不中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30]

이(理)가 기(氣)를 제어하여 사단이 칠정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면, 칠정이 중절(中節=和)을 이루어 선(善)이 된다. 사단은 본연지성의 정당한 순선이지만, 칠정은 기질지성의 유선악이므로 이승(理乘)하면 또한 불선(不善)함이 없으나, 리(理)가 승(乘)하지 않으면 인욕(人慾)을 따르는 것이며, 천리(天理)를 멸하는 부당한 악이라는 것이다. 이를 중화(中和)와 관련하여 논한다면, 칠정이 이(理)를 승(乘)하지 못하여 중절(中節)을 이루지 못하면 바로 희

27) 위의 책, 권 5
28) 위의 책, 권 1, 2
29) 위의 책, 같은 곳
30) 위의 책, 권 1

로애락이 애증과 시비를 초래하는 것이며, 시비를 초래한다는 것은 천리가 인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악이라는 것이다.

(4) 퇴계(退溪)의 성경론(誠敬論)

주자(朱子)는 일찍이 주자분류(朱子分類) 권(卷) 6에서 성(誠)과 경(敬)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敬是 然如有所畏之意 誠是 眞實無妄之名」

이러한 성경(誠敬)에 대한 입장과 분류는 퇴계의 성경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퇴계가 성학(聖學)의 심법으로 성(誠)보다는 경(敬)을 강조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즉 퇴계가 지성지도(至誠之道)의 실천이 성인(聖人)의 도리(道理)임을 간과한 것이 아닌 인욕(人慾)을 물리치기 위한 심법으로서 '외(畏)'라는 마음을 중시한 결과에 기인하여 경의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퇴계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이기(理氣)를 겸하고 성정(性情)을 통제(統御)하는 것은 심(心)이다. 그런데 성(性)이 발해서 정(情)이 되는 즈음에 일심(一心)의 기미와 만사(萬化)의 구요(樞要)와 선악이 나뉘어지는 것이니, 학자(學者)의 성실함은 능히 전일(專一)하게 지경(持敬)을 하여 천리와 인욕에 우매(愚昧)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31)

「천리와 인욕이 나뉘고 中節과 不中節이 나뉘는 것은 一心이 주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것이다」32)

퇴계는 학자의 성(誠)은 능히 지경(持敬)에 전일(專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경(敬)은 성학(聖學)에 있어서 처음과 끝의 요법(要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성(誠)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성(誠)을 이루기 위한 공부의 과정에서 지경전일로서 인욕에 산만함과 흐트러짐이 없는 심(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1) 退溪全書. 권, 1
32) 위의 책, 권 2

다음은 율곡이 전한 성(誠)에 관한 견해를 이기론, 사단칠정론, 선악론, 성경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율곡(栗谷)의 성(誠)

(1) 율곡(栗谷) 이기론(理氣論)

율곡전서(栗谷全書)의 성학집요(聖學輯要) 권 2의 수기상궁리장(修己上窮理章)의 내용을 참조하면 그가 지녔던 이기론에 관한 이해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는데 먼저 그것을 살펴보자.

> 「無形無爲而爲有之主者理也 有形有爲而爲無形無爲之器者氣也 此是窮理氣之大端也」

> 「夫理者 氣之主宰也 氣者 理之所乘也 非理則氣無所根抵 非氣則理無所依着」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리(理)는 무형무위이며, 기(氣)의 주재(主宰)로서 무소부재하게 각위기성(各爲氣性)한다. 리는 발하지 않고 기가 발하면, 리가 타는(乘) 것일 뿐이다. 기는 유형유위이고 이의 기재(器材)로서 질료적이며, 작위적인 존재이다. 이가 없으면 기의 주재가 없고 기가 없으면 이가 의착(依着)할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율곡은 이기의 합간(合看)을 강조하며, 사실적 동시공존을 중시하고, 퇴계의 이기호발설에 대하여 리(理)의 능동성을 부정하며 기발리승일도(氣發理乘一途)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율곡(栗谷)의 사단 칠정론(四端七情論)

아래의 내용은 역시 그의 사단칠정에 대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먼저 그것을 살펴보자.

> 「本然之性則不兼氣質而爲言也 氣質之性則却兼本然之性 故 四端不能兼七情 七情則兼四端」[33]

위의 내용에 따르면 율곡은 성(性)은 이기지합(理氣之合)이므로, 사단과 칠

33) 위의 책, 권 1

정은 이원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기발이승의 이치에 따라 칠정이 사단을 겸(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四端是七情之善一邊也 七情是四端之總會者分兩邊相對乎」34)

「夫人之性有仁義禮智信五者而已 五者之外無他性, 情有喜怒哀樂愛惡欲七者而已 七者之外無他情, 四端兄是善情之別名 言七情則四端在其中矣」35)

또한 사단은 칠정이 중절을 이룬 선일변(善一邊)을 말하는 것이며, 칠정은 사단의 선(善)한 가능성이 모여있는 총회자(總會者)이다. 무릇 사람의 성(性)에는 인의예지신 다섯이 있고, 정(情)은 희로애락애오욕 일곱 뿐 그 외는 없으며, 사단은 선정(善情)을 따로 부른 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율곡(栗谷)의 선악론(善惡論)

앞서 논의 된 것처럼 칠정은 인심과 도심 그리고 선악이 모두 모인 총체적인 이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그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七情卽人心道心善惡之摠名也」36)

또한 도심은 순수한 천리이며, 선이 있을 뿐 악은 없으며, 인심에는 천리와 인욕이 동시에 내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道心純是天理 故有善無惡 人心也有天理有人欲 故有善有惡」37)

본연지성(사단)은 순선의 정당성이며, 기질지성(칠정)은 그것이 중절을 이루고 있는냐 아니면 불중절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선악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단은 인간의 도심이며 천리를 갖고 있고, 칠정은

34) 栗谷全書, 卷 2, 答成浩原(壬申).
35) 위의 책, 같은 곳
36) 위의 책, 人心道心圖說
37) 위의 책, 같은 곳

인심이며 천리와 인욕도 그 속에 함께 있다. 퇴계는 기질지성은 주로 인욕에 치우치기 쉽다는 점을 중시하였으나, 율곡은 기질지성에 선악의 가능성이 다 함께 있음을 강조한다.

인심은 도심을 내포한 일심(一心)으로서 순선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인심에 악이 생기는 원인은 기질의 구애(拘碍)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론에 근거하여 선성(善性)은 청기(淸氣)이고, 악성(惡性)은 탁기(濁氣)임을 말하고 있는데, 탁기를 청기로 변화시킴으로써, 선한 본연지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됨을 강조한다. 그러나 "청기와 탁기의 본질은(氣之本)은 일청허지기(一淸虛之氣)[38]일 뿐이다."라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동류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현상적 기가 중화(中和)의 본연(本然)을 유지하는 청기가 있고, 중화(中和)의 本然을 잃은 탁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구별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4) 율곡(栗谷)의 성경론(誠敬論)

앞의 논의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율곡이 제시한 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율곡은 성(誠)은 '진실무망(眞實無妄)'한 것이며 '천도(天之道也)'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늘(天)의 성(誠)이 만물에 체현하면, 물(物)의 시종(終始)이 되므로 그것을 천리(實理)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실(實)'의 사상은 율곡 성(誠)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천(天)의 성(誠)은 실리(實理)이고, 사람(人)의 성(誠)은 실심(實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율곡은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天)의 성(誠)이고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성(人性)의 성(誠)이다」[39] 라고 하여 성의 실체를 보다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연관하여 천리(天理)는 천명(天命)이고 지선(至善)인 성(誠)의 실체는 인(仁)이므로 성(誠)은 공허(空虛)한 리(理)가 아닌 인간의 현실적, 실제적, 실천적 실리(實理)로 포착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심(心)을 논함에 있어서는 실심(實心)이 있어야 실행(實行), 실공(實功), 실효(實效)가 있다고

38) 위의 책, 권 2
39) 위의 책, 卷 6, 雜著 3

한다. 그리하여 율곡은 성학(聖學)의 심법으로서의 성(誠)은 실행(實行)을 중요시하여 궁행(窮行), 역행(力行), 거경(居敬)의 三大方法을 수행과 학문교육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40]

이처럼 율곡의 실천(實踐), 근면역행(勤勉力行), 실효(實效)를 중요시하는 정신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實用)을 강조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처리하고 남과 사귀고 하는 등의 일에서 이치(理致)를 구하고 인의예지를 실행하는 성실함을 성학공부(聖學工夫)의 근본(根本)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이 지니고 있었던 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3) 다산(茶山)의 성(誠)

다산은 앞의 논의에서 주장되었던 종래적 입장의 이기론을 벗어나 성즉리(性則理)나 성즉미발(性則未發)이니 하는 등의 논쟁에서는 벗어난 입장을 보여준다. 그의 학문적 입장은 성(性)의 규명보다는 치심(治心)의 도리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성(誠)을 성(聖)이요. 실리(實理)와 실심(實心)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천인(天人)을 관통(貫通)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존재론적 측면의 성(誠)에 치중하지 않고 성(誠)의 윤리가치론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성(誠)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근본이고, 성인(成仁)과 효행(義行)을 이루는 실천윤리적 현실개조의 기본개념으로서 논의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지녔던 성(誠)에 대한 인식은 천인통합의 원리와 도덕적 이상, 윤리적 주체성,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원리로서 논하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다산의 사상은 리(理)를 천명(天命)으로 품부(稟賦)한 것은 일성(一性)이지만 솔성(率性)하도록 운용하는 것은 일심(一心)에 달린 것이라고 하였고, 학문적 관심을 성(性)에서 심(心)으로 이전시킨다. 그는 성(性)은 따르는 것이지만, 「心一而矣 其發而爲心者可千可萬」 심(心)은 치(治)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발하는 것은 천(千)도 되고 만(萬)도 된다.[41]고 하며 심성(心性)이

40) 위의 책, 卷 29, 經筵日記 2
41) 與猶堂全書 I, 19卷, 詩文集, 答李汝弘書, 三一張

사물에 감응해서 발하는 것을 정(情)이라고 한다. 즉 도심(道心)을 위주로 한 인간의 일심(一心)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볼 때, 천명으로 품수(稟受)한 것은 성(性)이고 성(性)의 활용적 발로면 정(情)이므로 도심(道心)의 활용적 운용면을 강조한다. 또 인간의 성(性)은 변할 수 없지만 심(心)은 변할 수 있으므로, 가변적(可變的) 심(心)을 준 것이 곧 인간의 주권(主權)이 되어 인간은 주권적(主權的) 존재로 도심과 인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에 있어서 다 자율자작(自律自作)으로 주장한다고 하며 선은 인간의 공(功)이고 악은 인간의 죄(罪)며 천(天)은 선에 복을 주시고 음악(淫樂)함에 화(禍)를 주신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산은 매우 경험론적 실천 윤리적 도학사상을 펴기 때문에 그가 지녔던 성(誠)에 관한 견해 역시 중(中)의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부각된다.

> 「성인(聖人)이 미발하는 때도 계신(戒愼) 공구(恐懼)하여 사려하니 치심(治心)을 위한 각고(刻苦)의 용력이 있어야 중(中)을 얻는다」[42]

이처럼, 희로애락을 미발(未發)에서부터 중(中)의 공부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발할 때 중절(中節)의 화(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칠정의 미발시에 중의 공부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중(中)의 공부에 대해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率性之謂道 故性之所發之道心」"性을 따르는 것을 道라고 하는 까닭에 性이 발하는 바는 이른바 道心이다."[43]

라고 하여 인간의 道心을 항상 중요한 주체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다산의 도학(道學)은 심(心)을 주제로 하여 인간 스스로를 선악의 규정자로 보며 성(誠)을 중(中)의 실천적 공부법으로 보고 있다.

---

42) 위의 책, II. 七張
43) 위의 책, II, 3卷

Ⅲ.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의 의미

1. 요체(要諦)의 의미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그것을 담고 있는 요체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된 것처럼 요체는 수도의 근간이므로 그것에 관한 의미 파악이 전제되어질 때 성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요체가 지니고 있는 자전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보자.

요(要)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一. 구할 요: 요구함(請)의 의미를 지니며, 이와 관련하여 『孟子』에서는 「脩其天爵 以要人爵」라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二. 요할 요: 필수(必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傳習錄』에서는 「劉君亮要在山中靜坐」라는 내용에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三. 언약할 요: 약속(要約. 맹세(要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左傳』에서는 「使季路要我 吾無盟矣」의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四. 으를 요: 협박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論語』에서 「雖曰不要君 吾不信也」의 내용이 그것이다.

五. 막을 요: 억지로 못하게 함의 강제적(强制的)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漢書』에서 「皇太后固要」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六. 모을 요: 한데 합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禮記』에서 「要其節奏」의 내용이 그것이다.

七. 반드시 요: 꼭(要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後漢書』의 「男兒要當死於邊野 以馬革裹屍還葬」의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八. 대요 요: 종요로운 줄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大學章句』에서 「第五章乃明善之要」라는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체(諦)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살필 체: 자세히 조사함(審諦).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關尹子』에서는「諦毫末者 不見天地之大」라고 그 의미 전하고 있다.

二. 자세히 알릴 체: (詳悉)의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新論』에서는「不諦於心」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三. 이치 체: 불교에서는 진실무망(眞實無妄)한 도리. 또는 오도(悟道)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法華經科 註』에서는 「眞諦. 俗諦. 若見諦則驚悟」라는 내용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요체(要諦)란 가장 중요한 점(an important point) , 중요롭고 올바른 사리(secret)로 나타난다.[44] 따라서 수도(修道)에서 요구(要求)되는 필수적(必須的)인 대요(大要)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천도(天道)·천리(天理)로서의 성(誠)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誠)이 지닌 의미를 천도(天道) 내지는 천리(天理)에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내용에서 논의된 것처럼 성(誠)은 리(理)와 같이 인간과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지배원리이면서, 리(理)가 없이 물(物)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誠)이 없이는 만물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성(誠)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일관(一貫)하는 근원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 그것은 자연적인 존재법칙이자, 자율적인 당연법칙으로서 주체적(主體的)인 인간법칙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천도가 무단(無斷)하면서 불식(不息)하게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자연법칙에 일호(一毫)의 차착(差錯)없이 운행되는 배후에는 성(誠)이 자재(自在)함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대순지침』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성(誠)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誠)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게 도닦기를 힘써야 한다.[45]

---

44) 양주동 감수『국어대사전』서울: 선일문화사(1977) 1529쪽

천도의 운행이 차착(差錯)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을 괘의치 말아야 한다.46)

우주의 궁극적 실체이자 인간의 초월적 본성으로 나타나는 성(誠)은 천리(天理) 그 자체로써 아무런 인위적(人爲的) 작위(作爲)가 수반되지 않는 자인적(自因的), 자조적(自造的)인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심의(心意)가 일어나지 않는(未發) 적연(寂然)한 심체(心體)이므로 율곡은 그것을 「자연이연자(自然而然者)」라고 하였으며, 또 「무위자(無爲者)」47) 라고 말했다.

또한 그것은 잠연허명(湛然虛明)하여 공허(空虛)하기는 거울과 같고 평평하기가 저울대와 같은 것으로 지공무사(至公無私)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그것을 「중(中)」이라 하게 된다. 따라서 성(誠)이 있는 곳에 중(中)이 있고, 중이 있는 곳에 성이 있는 것이 되므로 성(誠)과 중(中)은 또한 일체(一體)이면서 양면적(兩面的)인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심(心)이 내감외응(內感外應)하면 성발위정(性發爲情)이 되거니와 그 정(情)이 청명(淸明)한 기(氣)를 승(乘)하여 천리에 따라 직출(直出:循天理而直出)하게 되면 「화(和)」가 되니, 화(和)는 이발시(已發時)의 중(中)으로서, 화(和)에서 성(誠)은 여실(如實)히 발리(發理)되는 것이다. 이렇듯 중화(中和) 속에서 발견되는 성(誠)은 자약(自若)하게 되는 것이므로 「존성(存誠)」과 「지중화(至中和)」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성(誠)은 천리이면서 천리는 합리적(合理的)이고 이성적(理性的)인 것이다. 이러한 천리는 청명한 기(氣)에 승(乘)하여 발휘되면 그 명(明)을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氣)가 청명하면 사심(私心)과 사욕(私慾)의 발동이 없게 되며, 천리의 이성적(理性的)인 면을 그대로 밝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성(誠)은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천리의 극진함이 털끝 만한 인욕의 사가 없나니라" 하셨도다.48)

---

45) 위의 책, 같은 곳
46) 「대순지침」 51면
47) 「誠無爲者未發也」(栗谷全書, 권 12, 答安應休).
48) 「전경」, 행록 2장 17절

천리(天理)로 대변되는 성(誠)이 특성중 하나는 인욕(人慾)의 사(私)가 없이 공평무사함에 있다. 퇴계는 이와 관련하여 '알인욕(閼人慾) 존천리(存天理)' 하는 것을 심성의 궁극적 이상으로 정리했다. 즉, 감성적(感性的)인 욕구인 인욕(人慾)을 막고 이성(理性)인 천리(天理)에 따라 행위하려는데 인성수양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인욕과 천리에 관한 퇴계의 입장을 살펴보자.

> 「이기를 겸하고 性情을 統御하는 것은 心이다. 그런데 性이 발해서 情이 되는 즈음에 一心의 기미와 萬化의 樞要와 선악이 나뉘어지는 것이니 學者의 성실함은 능히 專一하게 持敬을 하여 천리와 인욕에 愚昧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49)

> 「천리와 인욕이 나뉘고 中節과 不中節이 나뉘는 것은 一心이 주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50)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인욕과 천리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그것은 일심의 주재에 따라 서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율곡이 존성(尊誠)을 주장하였던데 반해 퇴계는 존천리(尊天理)를 주장하였고, 율곡이 성(誠)을 중시하였다면, 퇴계는 경(敬)을 중시하였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 퇴계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근거로 인욕의 극복을 중시하였던데 반해, 율곡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 바탕하여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개조에 중점을 둔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퇴계는 주자의 이기설[51]에 바탕을 두고 부잡불리(不雜不離)의 관계를 통한 이기설을 주장하였다.

'알인욕 존천리'는 경(敬)을 중시하는 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誠)은 하늘의 도(道)요 경(敬)은 인사의 근본이니 경(敬)은 곧 성(誠)이다. 성과 경은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성(誠)을 주로 하는 것이 경(經)이며, 경(敬)에 의해서 성(誠)은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敬)은 강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

49) 退溪全書. 卷 1
50) 위의 책, 권 2
51) 朱子大全, 권 46.「理與氣決是二物 但存物上着 則二物渾淪 不可分開名在一處」

율곡은 마음을 산만(散漫)하지 말고 항상 정신을 통일 집중된 상태로 지니고 모든 기거 동작을 가볍게 가지지 말고 조심하고 삼가는데 도(道)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말할 때도 경(敬)해야 하고 움직일 때도 경(敬)해야 할 것이며, 앉아 있을 때도 경(敬)해야 한다. 이는 일부러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심신이 숙연해지고 표리가 하나로 되는 경지가 경(敬)이다. 이 경(敬)의 태도를 취하면 천리(天理)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스스로 알게되기 때문이다. 퇴계는 항상 경을 위지로 학문을 한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진다.

그런데 존천리(存天理)의 구체적 실현이란 일상 생활에서 찾는다면 때에 따라 적절하고 변화에 따라 알맞게 예(禮)를 실현하는 것이다. 합례적(合禮的) 행위 즉 윤리의 실현이 곧 존천리의 구체적 내용이 된다.

당시 사회에 대한 퇴계의 합리화는 심성설(心性說)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이 심성설을 포괄하는 만년의 대표작인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그 결실을 맺는다. 그는 성학십도를 통하여 군주(君主)의 심성수양(心性修養)에 의한 덕치(德治)가 궁극적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우주 자연 질서와의 일치 현상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과거 자신의 성리설(性理說)로 밝힌다.

다시 말하면 군주가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자질을 갖춤으로서 덕치에 의한 백성을 위한 왕도정치가 가능하다는 종래의 유가관념을 다시 자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기설적 존재론의 근거 위에서 총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유가류(儒家類)의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합리화를 성학십도를 통하여 의도한다.

이것이 일본의 모토다 에이후(元田永孚)에 의한 이른 바 일본 명치(明治)의 교육칙어(敎育勅語)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퇴계는 이성(理性)과 칠정(七情)이 사이좋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성(理性)과 기성(氣性)을 구분함으로써 이성을 키우기 위해 칠정을 억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노하지마라,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理貴氣賤) 등, 퇴계는 그 방법으로 거경(居敬)과 신독(愼獨)을 택했으니, 제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공경의 독서이며 혼자일 때는 흐트러짐을 경계하는 신독의 독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이

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 기(氣)는 무조건 멀리하고 이(理)만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理)로서 기(氣)를 다스려 모든 사물을 냉철하게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는 조화의 원리를 극력 강조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사에 있어서도 감성(感性)을 무시하고 이성(理性)일변도로 살아간다면 인간생활은 인정도 애정도 없는 삭막하고 냉혹해질 것이며 그 반대로 이성을 전연 무시한 채 감성(感性)만으로 살아간다면 도덕 윤리가 피폐하여 인간생활이 동물생활로 전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理)와 기(氣)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理) 자의 뜻에 대하여 율곡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만약 '배를 만들어 물 위를 다니고 수레를 만들어 땅 위를 다닌다' 는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나머지는 모두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배는 당연히 물 위를 가야하며, 수레는 당연히 땅 위를 가야한다. 이것이 이(理)이다. 배이면서 땅 위를 가고 수레이면서 물 위를 간다면 그것은 이가 아니다. 임금은 어질어야 하며, 신하는 공경하여야 하며, 아비는 사랑하여야 하며, 자식은 효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理)이다. 임금이면서 어질지 않으며, 신하이면서 공경하지 않으며, 자식이면서 효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理)가 아니다. 천하에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이 이(理)이며, 당연히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 비리(非理)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리해 나가면 이(理)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理)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히 참됨을 쌓고 힘쓰기가 더욱 어려운 것" 바로 그것이다.

"사물에는 대소(大小)의 차이가 있지만, 이(理)에는 대소(大小)라는 개념이 없다. 아무리 밖으로 나가 보아도, 그 바깥이 없는 것[無外]이 이(理)이며, 아무리 안으로 들어가 보아도 그 안이 없는 것[無內]이 이(理)이다. 방향도 없고 장소도 없고 형체도 없으면서 어디에서나 충족하여, 거기마다 하나씩 태극을 갖추고 있어서 남거나 모자라는 일을 볼 수 없다." 하였다. 제자가 묻기를 "생각이 복잡해지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선생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마음(心)이 되었다. 그래서 이(理)가 주재(主宰)가 되어 기(氣)를 거느리면, 마음이 고요하여 지고 생각이 통일되어 자연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지만 이(理)가 주재 노릇을 못하고 기(氣)한테 눌리면, 마음이 흔들리어 어지러워져서 그 끝이 없다. 그리하여 온갖 못된 생각들이 자꾸만 몰려들어서, 마치 무자위가 빙글빙글 돌 듯이 잠시도 가만히 붙어있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잡념이 없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단지 공경[敬]하는 일에 불과하다. 공경하면 곧 마음이 통일되고, 마음이 통일되면 잡념은 저절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성(誠)은 구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誠)은 천도(天道)와 천리(天理)로써 만물을 질서에 맞추어 다스리는 근원으로『전경』에서는 그것을 대경대법(大經大法)이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大哉聖人之道德元亨利貞大經大法道正天地數定千法而理定心法正大光明仙佛儒大道正通…52)

위의 내용에서 "… 크도다! 성인의 도덕이여, 원형이정 대경대법이로다. 도(道)는 천지를 바로하고 수(數)는 천법(千法)을 정(定)하고 리(理)는 심법을 정(政)하고 정대(正大)하고 광명(光明)하게 선(仙)·불(佛)·유(儒)가 바르게 통한다…"는『전경』의 내용은 앞서 논의된 성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대순사상에 나타난 성(誠)은 기존의 입장을 취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제께서는 성인(聖人) 내지는 성(誠)의 주체로 무사지공하게 후천오만년의 청화지세를 이끄는 주제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극성(極誠)·극경(極敬)과 지신(至信)·지덕(至德)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洋洋上帝在上浩浩道主奉命明明度數無私至公引導乎無量極樂五萬年淸華之世肅我道友嚴我道友極誠極敬至信至德…53)

---

52)『전경』, 교운 2장 33절

53)『전경』, 교운 2장 41절 "넓고 넓은 상제께서는 위에 계시고 넓고 넓은 도주께서는 명을 받드시니 밝고 밝은 도수가 무사지공하게 무량한 극락 오만년의 청화세계로 인도한다. 엄숙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성.경을 다하고 지극한 덕과 믿음을 가지라."
이는 필자의 해석임을 미리 밝혀둔다.

3. 만물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성(誠)

성(誠)은 비단 인간만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근원이면서 존재이유이며, 존재성의 본질이라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중용(中庸)』 25章에 잘 나타나고 있다.

> 「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 君子 誠之爲貴」 "성(誠)은 사물의 끝과 시작이니. 성이 없으면 사물도 없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성을 귀하게 여긴다."

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성(誠)을 단순히 인성론적, 가치론적 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우주론적, 존재론적 원리에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먼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자.

> 불일이이(不一以二)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自誠)이 도성(道誠)의 정석(定石)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54]

위의 내용에서는 성(誠)의 내용이 도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자성(自誠)과 도성(道誠)으로 구별되며, 그것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의 내용에서, 성이 태극(太極)·지선(至善)과 관련하며 나타나는 특성과 부합되는 공통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자.

천리(天理)이며 천명(天命)·지선(至善)인 성(誠)의 실체는 인(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 대해 율곡은 율곡전서 권 31, 어록상(語錄上)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全體之仁 則是性 非有異也」 "전체의 인(仁)은 바로 성(性)이니, 인(仁)과 성(性)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성(性)은 성(誠)이면서 인(仁)인 것이며, 양자(兩者)는 성(誠)의 일체(一體)이면서 양면적(兩面的)인 것으로 본 것이다. 따

54) 『대순지침』, 51면

라서 성(誠)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인(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성(誠)과 선(善)의 관계를 살펴보자.

「至善 太極之異名」"지극한 선(善)은 태극의 다른 이름이다."[55]

「至善之體 則未發之中 而天命之性」"지선의 체는 곧 미발의 중이고, 천명의 성이다."[56]

「誠者天之實理 心之本體」"성은 천의 실리이고, 심의 본체이다."[57]

위의 내용에 의거하면 성(誠)은 심(心)의 본체(本體)이면서, 그것은 지선(至善)과 태극(太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상기한다면, 인간의 본심은 인선(仁善)으로 표현되며, 그것의 발로케 하는 이면(裏面)에 자성(自誠)이 내재하여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성은 도성(道誠)으로 확대되면서 우주와 인간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으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성(誠)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그것이 발휘되면 인선(仁善)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확대되어 만물에 작용되면 도성(道誠)이 되는 것이다. 즉 도성은 우주적 범위에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성(道誠)안에 인간의 자성(自誠)이 담겨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자성과 도성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성과 도성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불일이이(不一以二)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성(誠)의 본래적 특성인 인선(仁善)을 만물에 베풀어 그것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성이 지닌 인선의 위대함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자성은 도성을 이루는 정석(定石)이 되므로, 인간 내면에 내재해 있는 자성을 이끌어 도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리(天理)이며 천명(天命)·지선(至善)인 성(誠)의 실체는 인선(仁善)으로 나타나게 된다.

앞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곡은 성(誠)을「至中和」의 사상으로 발전·전개시켜 그는 지중화(至中和)를 통해 자아의 인격적 조화를 이룩하는

55) 栗谷全書, 권 9, 答成浩原, 丁卯
56) 栗谷全書, 같은 곳
57) 栗谷全書, 권 21, 聖學輯要, 誠實章 第 5

동시에(修己), 일가(一家)의 화평과 일국의 화평을 구현하는 동시에 천하의 화평을 실현하고자(治人) 하였다. 따라서 성(誠)으로 충만한 세계는 곧 인(仁)의 세계이면서, 천리에 의해 지배되는 지선(至善)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가 곧「천지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경지이다. 이러한 사실을 율곡전서 권 19, 성학집요 통설 제 1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至中和而位育者 明德新民至於至善 而明明德於天下之謂也……至中和之功止於一家則一家之天地位萬物育 而明德明於一家 至於一國 則 一國之天地位萬物育 而明德明於一國 及於天下則天下之天地位萬物育 而明德明於天下矣」"지중화하여 화육한다는 것은 명덕·신민·지어선과 명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을 말한다. …… 중화의 공이 일가에 그치면 일가의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생육할 것이고, 명덕이 일가에 밝게 될 것이며, 한 나라에 그치면 일국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화육할 것이고, 명덕도 일국에 밝게 될 것이며, 천하에 그치면 곧 천하의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생육하며 명덕이 밝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비교하여 상제께서는 현무경(玄武經)에서「曰有道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 育有蒼生 蒼生有億兆 億兆有願戴 願戴有唐堯 基礎棟樑終」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는 도에 내재한 덕으로 창생만물을 화육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제님의 덕화(德化)를 통해 세계를 구제하시고, 지극한 인선을 통해 천지공사를 시행하셨던 점을 상기한다면, 그 속에서 발견되는 성(誠)의 위대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만물의 존재적 근원으로써의 성(誠)의 가치는 상제님의 덕화로 귀결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은 상제님의 위격을 설명하는 명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응원(應元), 뇌성(雷聲), 보화(普化)가 그것이다.

즉 모든 천체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천명이라고 하는 상제님의 명에 응하지 않고 생성됨이 없으며, 인성(仁聲)이라 할 수 있는 뇌성을 통해 만물을 생장, 생성변화케 하고 지배·자양·육성하는 권능과 우주삼라만상이 유형 무형으로 변화하고 생성되는 것이 모두 상제님의 덕화임을 일깨우는 보화(普化)가 그것이다.

4. 신·인감응(神人感應)의 매개로 나타나는 성(誠)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인 신인조화는 인간과 신명과의 감통으로 그것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誠)이 신명과 인간을 감통케 하는 매개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먼저 『전경』의 내용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자.

>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사십구(四十九)일 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사십구(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58)

위의 예문 내용에 기초할 때 인간이 발휘하는 성심(誠心)은 신명과의 감통(感通)을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됨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성심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그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살필 수 있었다.

이처럼 신명은 성심(誠心)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존재이면서, 감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지닌 마음이다. 참고로 대순사상에서 천지신명은 인간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면서[59] 사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으로 나타난

58) 「전경」, 행록 1장 29절

다.[60] 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앞서 논의된 성(誠)의 특성과 부합되는 면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신명이 지니고 있는 본질은 성(誠)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통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공무사하고 인욕(人慾)과 사(私)를 멀리하는 성을 실천하는 성심은 당연 신명과의 감통을 이룰 수 있는 기저가 되는 것이다. 아래의 『전경』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부연하고 있다.

>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61]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성(誠)의 실천은 사곡(私曲)을 멀리하고 진실됨을 갖추는것에 행위의 방향과 특성이 모아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지닌 성심(誠心)이 신명에게 전달되어 그 결과 감통의 성현(聖顯)이 나타남을 앞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사상에 제시되는 성(誠)의 실천적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간의 성심은 신명과의 작용과 감통을 이끌어내며, 신인조화라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성의 실천은 수도에 있어서 신인조화라는 가장 궁극적인 이상실현의 중요한 요체(要諦)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자성(自誠)으로 이루워 놓은 나의 성탑(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신(神)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62]

---

59)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내용은 『전경』, 교법 3장 1절. 4절.등을 참조

60)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경』, 교법 3장 2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61) 『전경』,교법, 3장 24절

62) 『대순지침』, 41~42면

5. 운수(運數)와 관계하는 성심(誠心)

앞선 논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성(誠)은 신인조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 그리고 신인조화의 실현은 수도의 목적인 도통(道通)으로 이어지며, 도통은 또 다른 표현방법으로 '운수'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 운수를 받는다고들 하나 그것 역시 도를 닦아 도통하는데 있느니라[63]

이와 같이 도통(운수)를 실현하는데 있어 성심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자.

>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 [64]

위의 예문 내용에서는 성심과 운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 운수는 상제께서 정하여 놓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하여 놓은 운수를 받는 것은 각자의 성심(誠心)에 따라 결정되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수도의 요체로써 성(誠)이 지니고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제께서는 누구에게나 무량(無量)한 운수를 천지공사를 통해 정해 놓으셨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후천오만년의 무량한 대운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성심이란 수도를 통해 체득되는 일심(一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극히 무사지공한 편벽됨이 없는 마음일 것이다. 이를 일러 앞의 내용에서는 지중화, 실심, 본심, 도심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 성현으로 추존받는 옛 사람은 성(誠)을 일생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다.[65]

> 성(誠)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誠)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정

63) 『대순지침』, 38면
64) 『전경』, 교법 2장 37절
65) 『대순지침』, 41면

성으로 바르게 도닦기를 힘써야 한다.[66]

이처럼 성은 수도의 요체이면서 하늘의 도(天道)이므로, 수도를 행하는 것은 하늘의 도와 일치함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성(至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誠)을 행함은 인간으로써 마땅히 행해야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면서 천도(天道)와 인간의 성(誠)이 둘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천도에는 차착이 없으나 인간의 마음은 앞서 논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영향에 의해 성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경』은 다음과 같이 그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한다.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67]

이와 같이 성(誠)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천도의 밝음이 내재해 있으므로, 그것을 찾아 발휘하는 것을 수도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의 실천이 수도의 요체인 것이다.

또한 운수와 관련하여 상제께서는 서전서문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서전(書傳) 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大學) 상장(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 하셨느니라. 상제의 부친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읽지는 못하였으나 끊임없이 읽었으므로 지혜가 밝아져서 마을 사람들의 화난을 덜어 준 일이 많았도다. [68]

서전(書傳)의 서문(序文)은 성(誠)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전은 동양 최대의 고전(古典)으로 고대 중국의 이제삼왕(二帝三王)과 그 밖의 역대 왕의 선언(善言)을 산문(散文)의 형식으로 기록한 전적(典籍)으로, 가히 동양 최고의 고전으로 일컬어진다.[69] 서전의 서문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치세의 심법에서 성(誠)은 치세의 중요한 방법중

66) 위의 책, 같은 곳
67) 『전경』, 교법 2장 6절
68) 『전경』, 교법 2장 26절
69) 李相玉 譯解, 『書經』, 서울: 新韓出版社(1982) 11면 참조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 「…然二帝三王之治本於道 二帝三王之道本於心 得其心則… 精一執中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 曰德曰仁曰敬曰誠…」
> "…연이나 이제삼왕지치의 근본은 도이며, 이제삼왕지도의 근본은 심이다. 그 마음을 얻은 즉…정일집중은 요순우의 상수지법이요, 건중건극은 상탕주무의 상전지법이다. 덕이라하며, 인이라 하며, 경이라하며, 성이라 한다.…"70)

이와 같이 서전에서 시작한 성(誠)에 대한 관심은 그 후 공맹의 사서와 송대의 정주학으로 이어지다가,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자들간의 논쟁을 통해 전체적인 사상적 발전과 함께 성(誠)에 관한 이론적 내용도 크게 확대 발전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송대(宋代)의 성리학이 이기론 확립을 위한 존재론(存在論)에 치우친데 비해, 조선의 성리학은 도덕적 가치론에 기반을 둔 심성론에 치중하여 다산(茶山)에 이르러서는 실학적 활성론으로 발전하는 양태를 지니게 됨을 살펴보았다.

옛 성인(이제삼왕)이 전하는 치세의 도리로써의 심법의 중요한 골자는 정일집중(精一執中)과 건중건극(建中建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발휘되어 치세에 나타난 모습을 덕(德)·인(仁)·경(敬)·성(誠)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일집중(精一執中)과 건중건극(建中建極)으로 표현되는 심법의 바탕에는 성(誠)의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기에 상제께서는 도통을 위한 구체적 심법으로 서전서문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6. 정·기·신(精氣神) 합일로 나타나는 진성(眞誠)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성에 관한 특징은 그것이 정·기·신(精氣神)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誠)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 모든 것을 통해 지성(至誠)으로 펼쳐나가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70) 書傳 序文

성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다. 71)

이렇듯 사람이 펼쳐나가는 성(誠)의 진실된 모습(眞誠)은 정기신을 합일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과 관련한 간단한 의미를 살펴본 후 진성(眞誠)의 참된 의미를 조명하여 보겠다.

인간의 생명체를 정기신(精氣神), 즉 형이상학(形而上學)과, 형이하학(形而下學),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구분함으로써 고차원의 생명의학으로, 발전을 가능케 한 정수(精髓)이다. 정(精)은 에너지가 고도로 농축되어 물질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氣)란 정(精)속에 갇혀 있던 힘이 탈출하면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발현현상'을 말한다. 또한 신(神)은 물질이 다 탈출한 순수상태의 밝음(明)이 모여 있는 '영혼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精)·기(氣)·신(神)의 관계를 촛불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초 자체는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물질'로 정(精)에 해당하고, 촛불의 '불꽃이나 열기' 등은 기(氣)에 해당되며, 신(神)이란 이 물질에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와, 타서 발산된 열기의 에너지가 화합하여 표출한 그 '환한 빛의 모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精)·기(氣)·신(神)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정기신이 균형을 이루면서 인간의 정신(精神)이 안정되고 원기와 정력이 넘쳐 건강 장수 할 수 있다고 한다. 정은 정력으로 운동 또는 활동의 원동력이면, 기는 원기 또는 기력으로써 체내 구석구석에 유통되는 것이며, 신은 의지의 념(念)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원소로 영능한 것을 말한다. 즉 정(精)은 신(身)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기(氣)를 생명유지에 필요한 호흡(呼吸)을 의미하며, 신(神)을 의(意)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기신은 인간의 총체적인 측면을 표현한 것으로, 그것을 정신과 육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은 신(神)에 해당하며, 인간의 육체는 정(精), 그리고 정신과 육신을 연결하는 고리를 기(氣)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 에너지를 굳이 상태나 기능적인 역할별로 나누어 보자면 정(精)·기(氣)·신(神)이라는 명칭으로 나누어 보는데, 그 구분이 기묘함이라 조화하며

71) 「대순지침」, 51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의 수련 여하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는 상호 유동적인 에너지의 상태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道)는 어떤 종교적 신앙이나 숭배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정기신(精氣神)을 수련(修煉)하여 인간으로서 자기와 우주와의 관계에서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인간임을 깨달아 인간의 완성을 위한 도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誠)과 관련하여 정기신(精氣神)에 관한 언급과 그것의 수련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찾고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의 한계를 주어진 삶의 인연속에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몸에서 의식(마음)작용을 일으키는 신(神)은 불(火)의 기운(氣運)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신장(腎臟)에서 발생하는 물(水)기운을 만나 정(精)의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야 소모되지 않고 잘 결합하여 기(氣)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火)기운인 신(神)에너지는 밖으로 내 돌아 사방팔방 떠돌며 번뇌 망상 일으키고 소모되어 버린다. 그래서 도(道)를 수련하고 정기신(精氣神)을 연단하는 사람은 신장과 연결된 하단전인 관원이라는 부위에 상단전에 있는 신(神)이라는 에너지인 마음, 즉 의식을 붙잡아 가두고 오래도록 집중하여 일념(一念)의 상태로서 오래도록 고조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텅 비워진 무념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무념 상태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잠들기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물망물조(勿忘勿助:잊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상태), 청정자연 상태에 순응하는 약존약망(若存若亡:있는것 같기도 하고 없는것 같기도 한 상태)의 황홀한 상태을 말하며, 그 황홀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가 되여 지는 상태라 한다. 이 때에 자신도 모르게 양물이 발기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지금 기(氣)에너지가 충분히 축적이 되었다는 증거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 발기된 에너지를 자기의 호흡으로 하단전에 끌어 올리고 모아서 차분히 연단하여 육신의 임·독맥을 순환시키는 것을 수행(修行)이라 한다.

사람을 놓고 보면 한 몸뚱이와 그 속에는 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육신은 머리, 가슴, 배, 다리등 구분을 하여 말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

(정신, 혼, 영, 넋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무형인 것이므로 객관적 표현으로 구분이 어렵고 작용하는 자체도 형이상학적인 것이므로 객관적 분석이 어려운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그동안 생체에너지로서의 분석과 연구는 특정한 부류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이고 그 결과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체에너지의 실체를 구분하여 보면 하단전(下丹田) 배꼽 아래 기해(氣海)라는 곳에 위치한 정(精)이라는 활동에너지의 자리이며 단(丹)이 생성되는 곳이며, 생명력의 근본이며, 백(魄)이라고도 한다.

중단전(中丹田)은 가슴의 가운데 오목한 곳으로 명치 부위이며, 무의식과 현재의식이 주관하는 기(氣)의 위치이며, 혼(魂)이 거쳐하는 곳이라고 한다.

상단전(上丹田)은 눈썹사이의 중앙으로 미간이나 인당이라 하는 곳으로 신(神)이 자리하는 곳으로 마음의 본체며 영(靈)이 거쳐하는 부위라고 한다.

단전이라는 의미는 활동적인 그 어떤 에너지의 힘이 모이고 작용하는 중심적인 부위를 말하는 것인데, 한 몸을 팔, 다리, 머리 등으로 구분을 하고 각기 활동과 역할이 다르듯이 하나의 생명력이며 마음이며, 작용하는바 위치와 역할을 구분한 것이다.

정기신(精氣神)이라는 것이 한 개체로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에너지인데 작용하는 부위에 따라 기능과 성질을 다르게 나눈 것은 좀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精)이란 사람의 몸에 서려있는 그 어떤 생명력을 말하며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신체와 생식 능력이나 그의 활동을 의미한다.

기(氣)란 인체내 모든 곳을 상호 연결하는 자체의 기운을 뜻하며,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숨결이며 기력의 표현적 움직임을 말한다.

신(神)은 사람 몸안에 기거하는 마음이며, 뜻을 의미하며 신(神)은 활동하는 기(氣)가 목적으로 하는 뜻이며 마음인 것이다. 정신적 활동이며 창조활동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들은 몸안에서 상호간의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숨결, 즉 기(氣)를 잘 가다듬어, 정(精)을 튼튼히 하면, 튼튼한 정(精)은 건강한 신(神)을 만들며, 건강한 신(神)은 튼튼한 정(精)을 북돋아 유지 시켜주며 기(氣)는 이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

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정(精)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현상을 말하며, 우주의 기(氣)란 온 세상의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神)이란 자연계의 심령현상을 뜻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본다면 정(精)은 인간의 생명과 정력의 근원이며 기(氣)는 인간과 만물의 생화(生化)의 근본이며 신(神)은 인간 생명활동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정 기 신(精氣神) 세 가지의 활동적인 생체에너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조정하고 조화하고 융화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깨우치고 공부하여 도(道)의 경지에 오르려 애를 써도 정(精)이 쇠약하여져 마음을 담고 있는 육체가 생명력을 잃어 죽을 수 밖에 없다면 신(神)도 거쳐할 곳을 잃고 홀로이 넋이 되어 떠나가고 또 다시 다음 생의 인연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정(精)은 곧 생명력이며, 육체로서 마음이 거처하는 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마음(神)이 거쳐 할 수 있고 신(神)이 활동하여야 생각이 뜻을 세워 기(氣)를 움직여 정(精)을 돕는 것이다.

먹는 음식에 집착함은 신(神)을 해롭게 하겠지만 육체의 생명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음식으로서 정(精)을 보전하여야 도(道)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정(精)이란 인간의 생명을 유지 시켜주는 기본적인 에너지인데 내 몸안의 정(精)이 내 몸의 기(氣)라고 하는 숨결의 힘으로 우주공간에 가득한 온갖 기(氣)에너지를 끌어 들여 모아서 정(精)을 강건히 하는 것이며, 정(精)과 기(氣)도 서로 도우니 기(氣)가 모이면 정(精)이 충만하고 정(精)이 충만하면 기(氣)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기(氣)가 변하여 정(精)이 되는 데에는 응신(凝神)을 해야 된다고 한다. 즉 고요한 마음으로 한 곳에의 정신 집중을 의미한다. 또 정(精)이 기(氣)로 단련하는 데에도 역시 응신이 필수적인 것이다. 세상 살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정(精)은 금광이며 기(氣)는 금광에서 채취한 황금같은 것이며 신(神)은 황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기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체적인 한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주

에도 우주의 정기신(精氣神)이 있으며 지구에도 지구의 정기신(精氣神)이 있어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주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무한한 기(氣) 에너지와 상호 연결작용으로 우주의 절대적 영향력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한 존재적 상황에서도 상호간 아무런 장애없이 각기 개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며 영원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 성인들의 수련 방법을 말하는 가르침에도 정(精)을 가지고 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氣)를 돋우고 기(氣)로 말미암아 정(精)이 가득차는 것이니, 정(精)이야말로 만물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라 하였다.

인간의 몸안에 정기가 충실하고 골수가 건실하여야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 도(道)를 닦아 수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정(精)을 견고하게 하여야 도(道)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기(氣)를 기르고 정(精)을 굳게 지켜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고요한 가운데 마음과 호흡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자기 육신의 하단전인 기혈(氣血)에 가두어 오래도록 따뜻하게 보전하여 간절한 정성으로 기른다면 도(道)의 성취가 그리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 욕심을 떨치기 어렵고 애착심을 버리기 어려우니 정력(精力)의 소모가 많고, 정(精)을 지키고 채우기가 어려워 도(道)수련의 근본 재료인 정(精)을 사람들은 덧 없이 고갈시키니 무엇을 재료로 삼아 도(道)를 닦아 도(道)의 성취를 이루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정(精)·기(氣)·신(神) 즉 인간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기(氣)가 합일을 이룰 때 인간은 비로소 진실무망(眞實无妄)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극성(極誠)과 지성(至誠)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성은 정기신을 합한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수련과 마음의 바른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Ⅳ. 맺음말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성(誠)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기존의 입장과 비교해볼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수행의 요체로 나타나는 성(誠)은 신명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것의 특성이 베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의 대상이 비단 신명에게만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성(誠)은 궁극적 대상은 상제님을 일심으로 받드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순지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72]

성이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사실은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무자기(無自欺)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즉 성은 무자기의 실현에 그것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실현될 때 상제님을 몸과 마음을 통해 모실 수(侍天主)있게 되는 것이며, 성의 궁극적 실체가 상제이심을 이해한다면, 성의 진정한 실현은 상제님을 진실로 모시는데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이 수도의 요체로써 경(敬)·신(信)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성(誠)의 특징은 상제님에 대한 신앙으로 귀결되는 종교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변적(思辨的)이며, 철학적(哲學的) 논의에 그치는 성(誠)이 아닌 신앙을 통한 현실적 실천과 실현에 그것의 가치가 좀 더 크게 발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는 실천적 수도의 과정에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72) 『대순지침』, 51~52면

【참고문헌】

大巡眞理會 敎務部,『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大巡指針』, 서울:大巡眞理會 出版部

『書傳』

『論語』

『孟子』

『大學』

『中庸』

『漢書』

『禮記』

『新論』

『後漢書』

『傳習錄』

『關尹子』

『法華經科 註』

『栗谷全書』

『朱子大全』

『退溪全書』

『與猶堂全書』

梁柱東 監修『國語大辭典』서울:善一文化社(1977)

都珖淳,「誠의 敎育理論的 論理」,『國民倫理硏究』, 第 10號

李相玉 譯解,『書經』, 서울: 新韓出版社(1982)

大巡思想學術院 Institute of Daesoon Thoughts DAEJIN SINCE 1996